

2024년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결과보고서

韓-印 다문화 · 평화교육 교류 프로젝트

India-Korea Exchange Project
on Cultural Diversity and Peace Education

자유전공학부
연구책임: 조 준 희

1. 프로젝트 배경

□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 이민자 등 다문화 인구는 증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준비와 국민 인식 수준은 미흡

○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 4천여 명으로, 남한사회에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문화적 차이, 심리적 외로움, 경제적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2)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22)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포용적’이라고 대답한 반면, ‘남한 사람들이 친절하지만 끼워주는 것 같지는 않다’는 인터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함

○ 북한이탈주민 외에도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2024년에는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 기준인 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고정관념·차별은 갖지 않는 반면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지는 낮음

-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교류행동의지, 문화개방성 등 외부에 대한 개방성 지표가 악화되었고 이주민에 대한 인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다문화 인구에 대한 국민 인식이 긍정적으로 형성은 되어 있지만 이주민들을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교류하는 환경은 부족하다고 분석할 수 있음

□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 분할의 역사를 경험하고 현재 대표적인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꼽히는 인도 사례에 주목

○ 인도는 1947년 식민지 독립 과정에서 종교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국가들로 분할(Partition of India)되는 역사를 경험한 이후 현재까지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음

- 인도-파키스탄 관계는 영토 분쟁을 중심으로 매우 경직되어 있지만 2021년에는 정전 합의, 양국 정상 친서교환, 무역 재개 등 화해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함

-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난민과 이산가족이 발생하였고 핵문제가 대두되는 등 한 반도가 당면한 분단 문제와 유사점이 많음
- 한편 인도 내에서는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 시크교 등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으며 22개의 공용어 및 1천 60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 사회로 꼽힘
- 그러나 현재 인도는 힌두 민족주의에 의한 이슬람 차별과 배제 정치 이슈가 대두되며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임
- 정치적, 군사적 갈등 상황 속에서 다문화에 대한 포용과 관계 활성화가 가지는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인도 양국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다문화 사회로의 원만한 이행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인도는 정치 갈등이 포용력 높은 다문화 사회의 형성을 저해하고 또 반대로 다문화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정치 갈등을 심화하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다문화에 대한 포용과 이해가 갈등 해소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양국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발견해보고자 하였음

2. 프로젝트 목표 및 내용

- 한국과 인도의 다문화 현상 비교 연구
 - 한국과 인도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현상을 요소별로 비교해보고 공통점, 차이점 등을 분석
 - 대학 간 학술교류 및 학생들의 창의적 프로젝트를 통해 다문화 현상을 탐색하고 기록
- 다문화에 대한 포용과 이해가 갈등 해소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탐색
 - 다문화 현상을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이 전체 국가 및 사회의 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여러 가지 매체로 표현, 기록

○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한국과 인도의 대학생 참가자들이 주체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프로젝트 실천

□ 국내 북한이탈주민 유입 및 다문화 현상이 가지는 국제적 시사점과 국내 다문화 교육 방향 모색

○ 인도 사회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한반도 사회가 직면한 평화, 통합의 문제가 가지는 시사점을 분석하고 향후 필요한 다문화 교육 방향을 도출

3. 프로젝트 추진방법 및 일정

□ 인도 벵갈루루 크라이스트 대학의 Department of Liberal Arts 교수진 및 학생들과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팀 프로젝트 추진

□ 크라이스트 대학 학생들이 자유전공학부를 방문하여 다양한 한국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육적 가치를 탐색

○ 전체 일정

	학술대회	학생연합 프로젝트	CU방문	통일평화기반구축 사업 일정
5월	팀 구성 및 연구진행	팀 구성 및 프로젝트 구상		
6월				
7월				
8월	최종 연구발표	프로젝트 대면활동	학술대회	
9월				
10월		프로젝트 마무리		
11월				결과물 발표
12월				자료 정리
1월				자료 정리
2월				사업 마무리

○ CU방문일정

일자	활동 내용	활동 거점
8/19	프로젝트 진행 및 중간점검	서울대 220동 및 관악사
8/20		
8/21		
8/22		
8/23	DMZ필드트립	철원 양지리
8/24		
8/25		
8/26	서울시티투어	서울시내
8/27		
8/28	출국	

○ 세부 추진일정

🕒 일정				
Aa 항목	📅 날짜	☀ 상태	🗳 선택	📝 메모
👉OT	2024년 5월 15일	● 완료	회의	
👉CU-SNU 전체모임	2024년 6월 24일 오후 8:00	● 완료	회의	
👉CU-SNU 팀 구성	2024년 6월 25일 → 2024년 6월 30일	● 완료	회의	
💡 CU-SNU 팀별 프로젝트 1차 점검	2024년 7월 8일 오후 2:30	● 완료	회의	
💡 CU-SNU 팀별 프로젝트 2차 점검	2024년 7월 15일 → 2024년 7월 27일	● 완료	회의	팀별 CU/SNU 멘토에게 피드백받기
💡 CU-SNU 팀별 프로젝트 3차 점검	2024년 8월 5일 오후 1:00	● 완료	회의	
🚗투어 계획 및 예산 점검	2024년 7월 12일 → 2024년 7월 27일	● 완료	할일	
📖학술대회 팀별 진행	2024년 7월 1일 → 2024년 8월 21일	● 완료	할일	
💡학생연합 프로젝트 팀별 진행	2024년 7월 1일 → 2024년 8월 18일	● 완료	할일	
📖학술대회 연구발표	2024년 8월 21일	● 완료	행사	CU방문기간 중
💡학생연합 프로젝트 대면활동	2024년 8월 19일 → 2024년 8월 27일	● 완료	행사	CU방문기간 중
🚗DMZ 필드트립	2024년 8월 23일 → 2024년 8월 25일	● 완료	행사	
🚗서울시티투어	2024년 8월 26일 → 2024년 8월 27일	● 완료	행사	
💡 CU-SNU 팀별 프로젝트 수정본 제출	2024년 9월 30일	● 완료	할일	활동내용 정리 및 결과물 제출
💡 CU-SNU 팀별 프로젝트 최종본 제출	2024년 10월 14일	● 완료	할일	활동내용 정리 및 결과물 제출

4. 프로젝트 결과

☐ Project #1_Visual Novel Web Game for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India

○ 참여학생: Sneh, Yunchan, Sanhyuk, Sihun, Yujin

○ 한국과 인도 상호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미연시 컨셉의 웹 게임으로 제작

-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스토리라인 구상
-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육적 툴로 활용

○ 세부내용

□ 프로젝트 개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인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비주얼 노벨 웹 게임 개발을 목표로 한다. 게임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고정관념을 깨며, 공감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남북한 통일 및 평화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프로젝트 주요 내용

① 게임 개요: 문화 다양성 웹 게임

- 문화 교류: 한국과 인도의 관점을 반영한 내러티브 제공
- 공감 형성: 게임 내 캐릭터를 통해 다문화 경험 제공
- 고정관념 타파: 단순한 문화적 편견을 넘어 다층적인 캐릭터를 구성

② 목표 (Objectives)

- 비주얼 노벨 웹 게임 출시 → 한국과 인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플랫폼 구축
- 온라인 문화 정보 저장소 운영 →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요소를 집대성한 정보 제공
- 문화적 고정관념 해소 → 게임 속 캐릭터와 내러티브를 통해 고정관념을 재조명
- 문화 지식 제공 → 각국의 전통, 가치관, 사회적 규범 등을 학습할 기회 제공
- 상호 존중과 이해 증진 → 몰입형 게임플레이를 통해 공감대 형성

③ 타겟 오디언스

- 주요 대상: 한국 및 인도의 학생, 젊은 전문가, 문화 교류에 관심 있는 개인
- 부가 대상: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인도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

④ 개발 및 기술 스택

- 게임 엔진: Ren'Py (비주얼 노벨 게임 개발용)
- 백엔드 개발: Python
- 버전 관리: GitHub
- AI 활용: ChatGPT를 이용한 대화 및 내러티브 생성

□ 게임 진행 방식 및 스토리라인

① 한국 파트 (Korean Chapter)

- 1장: 인도 학생이 서울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오면서 한국 문화를 경험
- 2장: 서울의 명소 탐방 (경복궁, 광장시장, 한복 체험 등)
- 3장: 한국 축제 및 음악 페스티벌 경험

② 인도 파트 (Indian Chapter)

- 1장: 한국 학생이 크리스트 대학(Christ University) 교환학생으로 방문, 타지 마할 방문
- 2장: 인도 거리 음식 체험 및 영화 관람
- 3장: 다양한 인도 문화 및 축제 경험

③ 게임 시스템

- 선택지 기반 스토리 진행: 플레이어 선택에 따라 다른 엔딩 (해피 엔딩, 중립 엔딩, 배드 엔딩)
- 애정도 시스템: 캐릭터 간 관계 형성을 반영하는 점수 시스템

□ 기대 효과

① 문화 교류 및 이해 증진

- 한국과 인도의 문화를 실제 경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설계
-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담아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을 형성

② 교육적 역할

문화 저장소를 통해 정확한 문화 정보 제공

남북한 평화와 통일 관련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 수행 가능

③ 글로벌 확장 가능성

향후 다른 문화 및 국가를 추가할 수 있는 확장성 고려

다국어 지원 (한국어, 영어, 힌디어 등) 가능성 검토

□ 예산 및 지속 가능성

- 도메인 비용: 약 10,000 KRW (약 8.50 USD)
- AI 구독 비용: ChatGPT-4 활용 (월 20 USD)
- 서버 및 유지보수 비용: 안정적인 게임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보

□ 성공 지표 (Success Metrics)

- 사용자 참여도 → 게임 내 활동 시간, 재방문을 측정
- 문화적 영향 평가 → 설문 및 피드백 분석을 통해 이해도 측정
- 재정 성과 → 예산 사용 적절성 및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검토

□ 결론

- 이 프로젝트는 게임을 활용한 문화 교류 및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한국과 인도의 상호 이해와 공감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남북한 평화 및 통일의 개념을 반영한 내러티브를 통해 더 넓은 평화 구축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Project #2_A Trade of Fusion - A Cultural Exploration

○ 참여학생: Shreya, Mathirakshana, Kiseo, Eunhye, Junhyuk

○ 한국과 인도의 패션/뷰티 산업, 음식문화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 포용적 커뮤니티 형성을 은유하는 영상 제작

- 서로 다른 문화권의 패션과 뷰티산업이 세계적으로 확산, 융합되며 혁신을 만들어내는 양상
- 음식 문화가 평화로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모습
- 앞선 두 주제에 관한 인터뷰 진행

○ 세부내용

□ 프로젝트 개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인도의 문화 교류를 다룬 비디오 프로젝트로, 두 나라의 패션, 음식, 대화를 통해 통일과 평화의 개념을 탐구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인도의 문화 융합을 통해 단순한 정치적 통합이 아닌, 문화적 통일과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 프로젝트 주요 내용

① 패션과 미용 (Threads of Fashion and Beauty)

- 문화적 융합: 한국과 인도의 패션이 결합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
- 평화의 상징: 서로 다른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형성
- 다문화주의 표현: 패션이 단순한 스타일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상징
- “통일은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 문화적 요소가 융합되는 과정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

② 음식 (The Scents of Food)

- 음식의 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
- 음식 외교 (Culinary Diplomacy): 각국의 지도자들이 식사를 함께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처럼, 음식은 문화적 융합을 촉진

- 통일의 은유: 다양한 재료가 하나의 요리를 만들듯,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음
- “음식은 언어를 초월한 교류의 도구이며, 통일과 평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문화 간 대화 (Cultures in Conversation)

- 실제 인터뷰 진행: 대학 내 교수 및 학생들과 인터뷰를 통해 통일과 평화에 대한 생각 조사
- 주요 질문
 1. 한국과 인도의 맛을 결합한 퓨전 요리를 만든다면, 어떤 음식이 나올까?
 2. 두 나라의 패션 요소를 융합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
 3. 다문화 환경에서의 일상적인 교류가 평화로운 사회 형성에 어떤 기여를 할까?
-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문화적 통합과 평화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질 수 있다.”

□ 프로젝트의 핵심 메시지

- 통일과 평화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 문화의 융합(패션, 음식, 대화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통일은 서로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다.
- “문화적 교류와 융합을 통해, 평화로운 공존을 실현할 수 있다.”

□ 결론 및 향후 방향

-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인도의 문화 융합을 통일과 평화의 메타포(은유)로 활용하며,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 통일과 평화는 정치적 논리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개념’임을 강조
-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핵심 요소
- 패션, 음식, 대화와 같은 일상적인 요소들이 통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통일과 평화는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치이다.”

□ Project #3_Documentary Film Making

- 참여학생: Poorva, Anjini, Luna, Jiwon, Jiyeon
- 한국과 인도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를 통해 나타난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기록
- 세부내용

□ 소개 (Introduction)

인도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 표현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세계적인 사건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이러한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서사가 사람들의 평화와 수용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목적 (Objective)

본 정보 다큐멘터리는 두 대학의 학생들이 평화와 문화에 대한 서사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두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과 인기 미디어가 설정한 개념을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젊은이들이 직면하는 공통된 주제(여성성, 남성성, 메이크업에 대한 인식)를 조사하며, 최종적으로 평화와 문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방법론 (Methodology)

- 연구 데이터는 대학 캠퍼스와 도시 주변에서 진행되는 거리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다.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을 인터뷰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 인도와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 문화란 무엇인가?
- 페미니스트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메이크업을 한 사람의 사진을 보고 첫인상 질문
-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
- 평화란 무엇인가?

□ 기대 결과 (Expected Outcome)

이 연구 프로젝트는 인도와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이미지가 아닌, 실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평화로 나아가는 길임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평화와 수용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 프로젝트의 의의 (Significance of the Project)

인도와 한국의 젊은이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명한다.
미디어가 형성한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보여준다.

□ Research #1_Examining the Indian and Korean Cuisine Through the lens of Multiculturalism and Globalisation

○ 참여학생: Nihilaa, Aishwarya, Hyungjun, Sanghyuk

○ 한국의 인도음식 문화, 인도의 한국음식 문화 비교를 통해 세계화, 다문화 현상을 고찰

- 문헌연구,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 진행

○ 세부내용

□ 연구 개요

이 연구는 지난 20년간 한국과 인도의 요리 교류가 문화 통합 및 평화 구축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한국 요리가 인도에서, 인도 요리가 한국에서 점점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핵심 개념

한류(K-Pop, K-Drama)의 영향 → 인도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 증가

인도 요리의 글로벌화 → 한국에서 인도 음식에 대한 수용 증가

음식 외교(Culinary Diplomacy) → 음식 교류를 통한 문화적 이해 및 평화 구축

□ 연구 목표 (Research Objectives)

① 한-인도 요리의 현대적 트렌드 분석

- 퓨전 요리(fusion dishes) 등장
- 글로벌 시장에 맞춘 요리 변화
- 현대 소비자 요구에 따른 조리법 및 재료 변화

② 문화 보존과 적응의 균형 탐색

- 전통적 요리법 보존 vs. 현대적 변화
- 국제적 기준에 맞춰 조리법 변화

□ 연구 방법론 (Methodology)

① 1차 데이터 (Primary Data)

-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조사
- 인도의 한국 레스토랑 & 한국의 인도 레스토랑 방문
- 셰프, 레스토랑 운영자 인터뷰 진행
- 전통 요리법 유지 & 글로벌 변화 전략 분석

② 2차 데이터 (Secondary Data)

- 사례 연구 (Case Study Analysis)
- 지난 50년간 한-인도 요리 변화 분석
- 주요 학술 연구 및 산업 보고서 검토
- 문헌 연구 (Literature Review)
- 한-인도 요리의 역사적 발전
- 세계화와 퓨전 요리의 역할
- 문화적 정체성과 요리 변화 관계

□ 연구 주요 내용 및 분석

① 한-인도 요리의 역사적 변화

- 인도 요리: 무굴 제국(Mughal Empire) 시절 페르시아 영향을 받아 다양한 향신료 사용 증가
- 한국 요리: 조선 시대(1392-1897) 전통 유지 → 16세기 이후 고추 도입으로 김치 변화
- 한류의 확산으로 인도에서 한국 음식의 인기도 상승
- 인도 이민자 증가로 한국에서 인도 음식점 수 증가

② 세계화와 퓨전 요리 (Fusion Cuisine & Globalization)

- 인도 요리 사례: 치킨 티카 마살라(Chicken Tikka Masala), 판니르 케사디아(Paneer Quesadilla)
- 한국 요리 사례: 한국 BBQ 타코(Korean BBQ Taco), 김치 버거(Kimchi Burger)
- 한국 레스토랑 → 인도 채식주의 소비자를 위한 메뉴 개발
- 인도 레스토랑 → 한국 입맛에 맞춰 향신료 강도 조절

③ 문화 보존 vs. 적응 (Cultural Preservation vs. Adaptation)

- 문화적 정체성 유지 vs. 세계적 트렌드 반영
- 정통성(Authenticity)이 중요하지만, 현지화된 요리도 필요
- 소비자들이 원하는 “진정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사례 연구 ① - 인도 내 한국 레스토랑

- 인도 주요 도시에서 한국 레스토랑 급증 (2010년 이후 50-60% 증가)
- 인기 메뉴: 김치(45%), 비빔밥(38%), 한국 BBQ(30%)

사례 연구 ② - 한국 내 인도 레스토랑

- 2000년대 초 30개 미만 → 2023년 200개 이상 증가
- 인기 메뉴: 난(55%), 커리(55%), 탄두리 치킨(40%)
- 남인도 요리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짐

□ 연구 결론 (Conclusion)

- 한-인도 요리 교류는 단순한 미식(traditional cuisine) 변화가 아닌, 문화적 이해와 평화 구축의 도구
- 음식이 외교적 역할을 하며, 글로벌 문화 교류의 핵심 요소
- 한-인도 퓨전 요리의 발전 가능성 (예: 김치 파라타)
- 더 다양한 지역 요리의 글로벌 시장 진출
-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bridge)이다.”
- 한-인도 요리 교류는 세계화, 다문화주의, 평화 구축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시사함.

□ Research #2_Media-Driven Cross-Cultural Consumerism in Music and Dance Among College Students in India and Korea

○ 참여학생: Saanvi, Mehul, Vrindarika, Minju, Munseong

○ 한국과 인도에서 미디어가 주도하는 문화콘텐츠 소비현상을 통해 타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상호존중감 증진에 대해 고찰

- 설문조사를 통해 인도에 비해 한국 학생들이 외국(인도) 문화콘텐츠에 대해 보수적인 경향 발견
-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는 것이 문화적 선호도 형성,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

○ 세부내용

□ 연구 개요

이 연구는 인도와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외국 음악과 춤을 소비하는 방식과, 이러한 문화 교류가 양국 간 이해와 평화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K-POP과 한류 콘텐츠 → 인도에서 한국 문화 소비 증가

- 볼리우드 음악과 춤 → 한국에서 인도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 미디어의 역할 → 소셜 미디어와 스트리밍 플랫폼이 문화 확산을 촉진

핵심 개념:

- 문화적 소비주의(Cross-Cultural Consumerism): 미디어를 통해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소비하는 현상
- 미디어와 문화 외교(Cultural Diplomacy): 음악과 춤을 통한 상호 문화 이해 및 평화 증진
- 경제적 영향(Economic Impact): 외국 음악과 춤의 인기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 연구 목표 (Research Objectives)

- ① 미디어가 한-인도 대학생들의 문화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② 음악과 춤을 통한 문화 교류의 가능성 탐색
- ③ 문화 소비주의가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방식 조사
- ④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미디어 활용 전략 제안
- ⑤ 한-인도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제적 영향 평가

□ 연구 방법론 (Methodology)

이 연구는 정량적(Quantitative) 및 정성적(Qualitative) 연구 방법을 결합하여 수행되었다.

① 설문조사 (Survey & Data Collection)

- 서울대학교 및 크리스트 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진행
- 한국 학생 53명 & 인도 학생 50명 참여

② 정량적 분석 (Quantitative Analysis)

- 미디어 소비 습관 분석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포티파이 등 사용 빈도)
- 외국 음악/춤 경험 정도 평가

③ 정성적 분석 (Qualitative Analysis)

- 한국 학생들에게 인도 음악 청취 실험 진행 (30초~1분 듣고 피드백)
- 각국 학생들의 문화 교류 경험 및 태도 인터뷰

□ 연구 주요 결과 및 분석

① 미디어 소비 습관 (Media Consumption Habits)

- 소셜 미디어 사용:
- 한국 대학생 92.5%, 인도 대학생 87.5%가 하루에 여러 번 SNS 사용
- 한국 학생: 인스타그램(90.6%), 유튜브(86.8%)
- 인도 학생: 인스타그램(97%), 유튜브(77%), 트위터(22.9%)
- 음악 & 영상 소비:
- 인도 학생들은 영화 & TV 프로그램 시청을 더 선호
- 한국 학생들은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소비 비율이 높음

② 외국 음악 및 춤 노출도 (Exposure to Foreign Music & Dance)

한국 학생들

- 88%: “인도 음악과 춤에 익숙하지 않다”
- 76%: “인도 춤을 본 적이 없다”
- 68.5%: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인도 음악을 들었다”

인도 학생들

- 60%: “한국 음악과 춤을 알고 있다”
- 47%: “정기적으로 한국 음악을 듣는다”
- 하지만 71%: “K-POP 앨범이나 굿즈를 구매한 적은 없다”

결론:

- 인도 학생들은 K-POP과 한류 콘텐츠를 적극 소비하지만,
- 한국 학생들은 인도 문화 콘텐츠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이며, 경험이 부족함

③ 문화 소비주의가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인도 학생들은 미디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있음
- 한국 학생들은 직접적인 문화 노출이 적고, 콘텐츠 품질에 따라 관심이 좌우됨
-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소셜 그룹 형성이 가능

음악과 춤이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교류를 증진할 가능성이 있음

□ 연구 결론 (Conclusion)

- 한국과 인도의 대학생들은 미디어를 통해 외국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음
- 인도에서 한국 문화(K-POP, 드라마)는 강력한 소비층을 확보
- 반면, 한국에서 인도 문화(볼리우드 음악, 춤)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짐

- 음악과 춤은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상호 이해를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 교류는 한-인도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정책 및 실행 전략 (Recommendations & Action Plan)

① 미디어 캠페인 (Media Campaigns)

- 인플루언서 & SNS 활용하여 한-인도 음악/춤 콘텐츠 소개
- 한-인도 음악/춤 챌린지 개최 (예: 인도 학생이 K-POP 춤을 배우고, 한국 학생이 볼리우드 춤을 추는 콘텐츠)
-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유튜브와 협력하여 한-인도 음악/영화 콘텐츠 접근성 향상

② 교육 프로그램 (Educational Programs)

- 한-인도 대학 간 문화 교류 프로그램 운영 (음악 & 춤 관련 워크숍)
- 대학 내 선택 과목 개설 (K-POP과 볼리우드 음악 & 춤 학습)

③ 온라인 플랫폼 & 문화 축제 (Online Platforms & Cultural Festivals)

- 한-인도 음악/춤 교류 플랫폼 구축 (아티스트 & 팬 커뮤니티 활성화)
- 하이브리드 문화 축제 개최 (한-인도 아티스트들의 합동 공연)
- 양국의 학생들이 협력하여 만든 음악 & 춤 콘텐츠 경연대회 운영

□ 최종 결론 (Final Thoughts)

이 연구는 미디어가 문화 소비와 교류를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강조한다.

- 인도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 반면,
- 한국 학생들은 인도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한-인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전략적 실행이 필요함.

□ Research #3_Comparative Analysis of Muslim Refugees and Migrants: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Multicultural Integration in India and South Korea

○ 참여학생: Sonaxi, Ilakiya, Pranati, Junhyuk, Yujin

- 난민/이민자에 대한 한국과 인도 커뮤니티의 태도 및 사회적 제도 비교
 - 난민/이민자의 사회적응과 경제적 안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 탐색
 - 난민/이민자들이 겪는 언어적, 종교적 차별
 - 다문화주의의 중요성 고찰
- 세부내용

□ 연구 개요

이 연구는 인도와 한국 내 무슬림 난민 및 이주민의 취업 기회와 사회 통합 과정을 비교 분석한다.

특히 인도 방갈로르의 로힝야 난민과 한국 내 무슬림 이주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안정, 사회적 배제, 정책적 한계를 연구하며, 이주민과 난민의 고용 가능성과 다문화 수용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핵심 연구 질문:

- 한-인도 국민들은 난민과 이주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 두 국가에서 난민과 이주민이 겪는 고용 기회와 사회적 장벽은 무엇인가?
- 정부 정책이 난민과 이주민의 사회 통합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 이주민과 난민이 지역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대응 방안은?

□ 연구 방법론 (Methodology)

이 연구는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기반으로 인터뷰 및 민족지적 연구(ethnographic research)를 진행하였다.

① 설문조사 및 인터뷰

- 한국: 서울 중앙 모스크(이태원)에서 무슬림 이주민 10명 인터뷰 진행
- 인도: 방갈로르 지역 로힝야 난민 10명 인터뷰

② 현장 관찰 (Ethnographic Observation)

- 무슬림 난민 및 이주민의 직장 환경 및 생활 조건 직접 관찰
- 지역 사회 내 상호작용 기록 및 분석

③ 데이터 분석 (Data Analysis)

- 인터뷰를 주제별로 분류 및 비교 분석

- 한국과 인도의 난민 및 이주민 경험 비교

□ 연구 주요 결과

① 고용 기회 비교 (Employment Opportunities)

인도 (방갈로르) 로힝야 난민

- 공식적인 난민 지위 부재로 인해 비공식 노동 시장에 의존
- 저임금, 불안정 노동 (쓰레기 분류, 가정부, 청소 등)
- 힌디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취업 기회가 더욱 제한됨
- 고용주 및 지방 정부의 차별적 태도 존재

한국 내 무슬림 이주민

- 고급 교육을 받은 이주민은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 가능 (대기업, 대학 교수, IT)
- 그러나 대부분의 무슬림 이주민은 3D 업종(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으로 분류
- 취업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이 필수적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면 일자리 기회 제한)
- 여성 무슬림 이주민의 경우, 히잡 착용으로 인해 취업 차별 경험

결론:

- 인도에서는 난민 지위 부재로 인해 취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
- 한국에서는 법적 노동 허가가 가능하지만, 언어·문화 차별로 인해 취업 환경이 제한적

② 사회 통합과 차별 (Social Integration & Discrimination)

인도 내 로힝야 난민

- 언어 장벽: 힌디어, 칸나다어 미숙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어려움
- 사회적 배제: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신과 차별 경험 (불법 이주자로 간주됨)
- 기본 인프라 부족: 물, 전기, 의료 서비스 접근성 낮음
- 공권력 불신: 경찰의 보호 부족 및 일부 경찰의 뇌물 요구

한국 내 무슬림 이주민

- 문화적 장벽: 할랄 음식 접근성 부족, 무슬림 기도 공간 부족
- 직장 내 차별: 종교적 관습(기도, 히잡 등)에 대한 이해 부족

- 사회적 고립: 한국 사회 내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 한국인과의 상호작용 부족
- 음주 문화 문제: 회식 강요 및 술자리 문화로 인해 사회적 통합이 어려움

결론:

- 인도 내 로힝야 난민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으며, 차별과 불신이 심각함
- 한국 내 무슬림 이주민은 제도적 지원이 있지만, 문화적·사회적 차별로 인해 통합이 어려움

[3] 정부 정책 비교 (Government Policies & Effectiveness)

인도의 난민 정책

- 1951년 난민 협약 미가입 → 공식적인 난민 보호 정책 없음
- 즉흥적인 정책 운용 → 지역별 난민 대우 차이 큼
- 난민을 비공식 경제에 종속시키며, 법적 보호 부족

한국의 난민 및 이주민 정책

- 1951년 난민 협약 가입, 2013년 난민법 제정
- 그러나 난민 인정률 2% 미만 → 실질적인 보호 한계
- 이주민 노동 정책 (고용허가제, EPS) 존재하지만, 문화적 배려 부족

결론:

- 인도는 난민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며, 정책이 일관되지 않음
- 한국은 법적으로 보호 시스템이 있지만, 실질적인 난민 인정률이 낮고 차별이 존재함

□ 연구 결론 및 정책 제언

[1] 다문화 수용성 증진

- 인도: 난민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공식 노동 허용 필요
- 한국: 무슬림 이주민의 종교적·문화적 다양성 인정 및 사회 통합 프로그램 확대

[2] 언어 및 직업 교육 강화

- 인도: 로힝야 난민을 위한 힌디어·칸나다어 교육 지원 필요
- 한국: 무슬림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취업 지원 확대

[3] 공공 서비스 및 법적 보호 강화

- 양국 모두 난민과 이주민이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강화 필요

“문화적 포용과 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때, 난민과 이주민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남북한 통일과 평화에 대한 시사점

이 연구는 한국의 무슬림 이주민 사례를 통해 미래 남북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 북한 이탈주민과 남북 통일 이후 북한 주민도 남한 사회에서 비슷한 문화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
- 남한과 북한의 경제 격차는 난민과 이주민 문제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미리 통합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대비가 필요함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사회적 포용과 문화적 이해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 최종 결론

이 연구는 인도와 한국의 난민 및 이주민 정책, 사회적 통합 과정, 차별과 고용 문제를 비교하여,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난민과 이주민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 사회적 대화와 포용적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난민과 이주민도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Research #4_Partition Narratives

○ 참여학생: Khooshi, Parinaaz, Joshya, Luna

○ 한국과 인도의 분단/분할 역사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영향 비교

- 한국과 인도 학생들이 어떻게 분단/분할 역사를 경험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지 설문조사
- 분단/분할 경험이 영화, 문학 등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양상 분석

- 분단/분할에 대한 집합적 기억과 역사적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데 미디어, 교육, 구전기록 등이 하는 역할 평가

○ 세부내용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도-파키스탄(1947)과 남한-북한(1945) 분단이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분단이 세대 간 트라우마, 사회적 긴장, 집단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탐구하며, 구조적 폭력(Galtung, 1969)과 문화적 분열(Huntington, 1996)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설명한다.

□ 연구 목표

- 인도-파키스탄과 남북한 분단의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영향을 비교.
- 영화, 문학 등 미디어에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분석.
- 두 국가의 분단 서사가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는 방식 탐구.
- 교육, 구술 역사 등이 분단에 대한 집단 기억을 형성하는 방식 평가.

□ 연구 방법론

- 표본: 인도와 한국의 33명의 응답자 (생존자의 후손 또는 역사적 연구 경험자).
- 1차 데이터: 반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수집.
- 2차 데이터: 학술 서적, 국제 관계 연구 문헌 등을 활용.

□ 주요 연구 결과

- 인도-파키스탄 분단: 75%의 응답자가 가족 이야기 및 사회적 긴장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경험했다고 응답.
- 남북한 분단: 45%의 응답자가 가족 이산, 군 복무, 정치적 긴장을 통해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
- 분단 교육의 문제: 인도의 50% 응답자가 역사 교육이 피상적이며 정치적 서사 위주라고 지적. 한국에서도 54%가 북한의 관점을 배제한 편향된 교육이라고 응답.
- 심리적 영향: 인도-파키스탄 분단 경험자 중 40%가 가족 내 트라우마를 경험. 남북한 분단의 경우, 36%가 분단으로 인한 감정적 복잡성을 보고.

□ 미디어와 교육의 역할

- 미디어 재현 문제: 인도-파키스탄 분단 관련 서사는 종종 과장되거나 편향된 방식으로 묘사됨.
- 교육의 한계: 인도에서는 정치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며 인간적 고통을 무시. 한

국에서는 북한을 위협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강함.

□ 정부 정책과 분단 후유증

- 인도-파키스탄: 종교적 갈등이 지속되며, 역사적 피해의식이 대립을 심화.
- 남북한: 군비 증강이 지속되며, 정부 정책이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존재.

□ 결론 및 평화 구축 방안

분단은 세대 간 트라우마를 초래하며 사회적 긴장을 심화시킨다.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려면 역사 교육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포함하고, 국가 간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Research #5_Suppression and Revival of Literature During the Colonial and Modern Period in India and Korea

○ 참여학생: Nishtha, Ritanjana, Laavanyaa, Minjung, Bogil

○ 식민지배 역사 이후 한국과 인도의 문학에서 나타난 국가 정체성 형성, 평화를 표현하는 양상에 대한 고찰

- 한국과 인도의 식민지배 역사에서 문학이 저항과 국가 정체성 보전의 도구가 되는 현상
- 식민지 문학을 통해 과거의 억압된 목소리의 회복, 평화와 화해를 주장하는 역사적 맥락의 이해
- 휴머니티에 대한 공감, 이해, 재인식을 통한 평화 구축의 가능성

○ 세부내용

□ 연구 개요

이 연구는 식민지 시대와 현대 인도 및 한국에서 문학이 억압되고 다시 부흥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영국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인도와 일본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한국이 문학을 통해 저항과 민족 정체성 회복의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탐구한다.

핵심 연구 질문:

- 식민 지배하에서 문학은 어떻게 억압되었는가?
- 독립 이후, 두 나라에서 문학은 어떻게 부흥하고 보호되었는가?

- 문학이 평화 구축 및 다문화주의 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 연구 주요 내용

① 인도의 식민지 시대 문학 탄압 (1757-1947)

연극 검열: 1876년 Dramatic Performances Act를 통해 반영국적 연극을 금지

- 예: Nil Darpan (디나반두 미트라) → 인도 농민의 고통을 묘사하여 금지됨
- 언어 및 교육 통제: 지역 언어(힌디어, 벵골어 등)로 된 역사서 검열, 영국 문학 강제 교육

출판물 검열:

- 바갓 싱(Bhagat Singh)은 혁명적 문헌 Ghadr di Gunj 소지로 체포됨
- 반영국 신문과 팜플렛 배포 차단
- 문학 단체 및 독서실 탄압: 민족주의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 폐쇄
- 출판사 규제: 1878년 Vernacular Press Act로 지역 언어 신문과 서적 출판 금지

② 한국의 일본 식민 지배하 문학 탄압 (1910-1945)

한국어 금지: 한국어 출판 제한, 교육에서 일본어 사용 강요

문화 탄압 정책:

- 한국 역사 왜곡 →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
- 한국 전통 의상(한복)과 문학 양식 억제
- 언론 및 출판 검열: *치안 유지법(1925)*을 통해 반일적 문학 출판 금지

문학 저항 사례:

-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 노동 계층의 비극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
- 김소월의 진달래꽃 →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조국에 대한 사랑 표현

③ 독립 후 문학 부흥 (1947-현재, 인도 & 한국 비교)

인도의 문학 보호

- 헌법 (1950년): 표현의 자유 보장 (헌법 제19조)
- 문학 지원 정책: Sahitya Akademi(1954년) 설립 → 문학 지원 및 번역 활성화
- 문학 운동: 프로그레시브 라이터즈 무브먼트 → 사회적 불평등 및 여성 문제를 다룬 문학 출현

한국의 문학 보호

- 독립 후 언론 자유 보장 (그러나 독재 시기 검열 존재)
- 1960-70년대 검열 강화: 박정희 정권 하에서 반정부 문학 탄압

- 김수영의 김일성 만세 → 반체제적 내용으로 출판 금지
- 1980년대 이후 민주화와 문학 자유 확대
- 민중문학 운동 등장 → 노동자, 학생 운동 관련 문학 부흥

결론:

- 인도는 문학을 통한 민족주의 고취가 주요 목표였으며, 독립 후 다문화주의와 포용을 강조
- 한국은 문학을 통한 민족 정체성 회복이 주요 과제였으며, 독립 후 검열과 저항 문학이 지속됨

④ 문학과 평화 구축 (Peacebuilding Through Literature)

문학이 어떻게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가?

식민지 역사 공유를 통한 연대: 인도와 한국은 비슷한 억압을 경험 → 문학을 통해 공감과 교류 가능

억압받은 목소리 회복:

- 인도: 영국의 식민지 정책 속에서도 힌디어, 벵골어 문학 발전
- 한국: 일본 식민지 시기에도 한글 문학을 지켜낸 사례 존재

다문화주의 수용:

- 인도: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다문화적 문학 발달
- 한국: 상대적으로 동질적이지만, 최근 다문화 담론 증가

제언:

- 한-인도 협력 프로젝트: 문학 교류 및 번역 활성화
- 공동 문학 축제 개최 → 한국과 인도의 문학적 유사점 탐구
-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문학 공유 (예: 한국-인도 공동 문학 웹사이트 운영)

□ 최종 결론

문학은 억압을 넘어 민족 정체성 형성과 평화 구축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인도와 한국은 비슷한 식민지 경험을 공유하며, 이를 문학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억압을 극복하고 다문화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학의 궁극적인 역할이다.

“문학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기억과 저항의 공간이며,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이다.”

5. 프로젝트의 의의

- 통일미래세대가 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평화 기반 구축에 필요한 다문화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학술적 주제 발견

○ 문화 표현과 정체성 (Cultural Representation & Identity)

1) 문학과 역사 속 문화 표현

- 식민지 시대 인도와 한국의 문학 탄압 및 부흥 연구에서 문학이 민족 정체성과 문화 보존의 수단이 되었음을 탐구
- 영국과 일본의 식민 지배가 언어와 문학을 탄압하면서도, 결국 이를 통해 민족 정체성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분석함
- 탈식민지 시대 이후 문학이 독립된 국가의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2)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통한 문화 확산

- 한류(K-POP, 드라마)와 볼리우드(영화, 춤)의 글로벌 확산이 문화적 소비주의(cultural consumerism)를 형성
- SNS와 미디어 플랫폼이 한-인도 대학생들의 문화 수용 방식에 미친 영향 분석

○ 문화적 교류와 다문화주의 (Cultural Exchange & Multiculturalism)

1) 요리를 통한 문화 융합 연구

- 한-인도 요리 교류 연구에서 음식이 문화 교류의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
- 김치와 향신료 기반 인도 요리의 퓨전이 새로운 음식 문화를 창출하고 있음

2) 패션과 미용 산업에서의 문화적 융합

- 패션과 뷰티 산업에서 한국과 인도의 스타일이 융합되면서 다문화적 정체성을 형성
- 인도 학생들이 K-뷰티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에서도 인도 전통 의상과 악세서리에 대한 관심 증가

3) 음악과 춤을 통한 문화적 연결

- K-POP과 볼리우드 댄스가 각각 상대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촉진
-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다문화 콘텐츠 소비가 상호 이해와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사회적 포용과 정책 (Social Inclusion & Poli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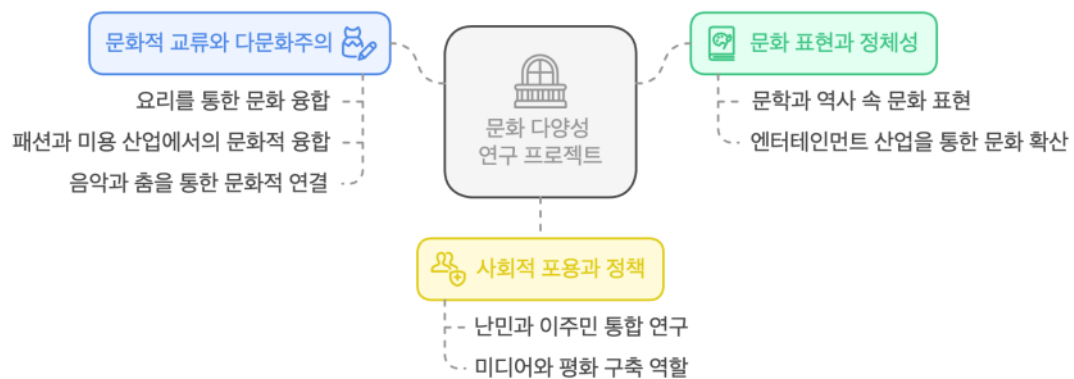
1) 난민과 이주민 통합 연구

- 한국의 무슬림 이주민과 인도의 로힝야 난민 비교 연구
- 한국은 제도적 보호가 존재하지만, 문화적 차별로 인해 통합이 어려운 반면, 인도는 제도적 보호가 부족하여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음.

2) 미디어와 평화 구축 역할

- 미디어가 문화 다양성을 널리 알리고, 통일과 평화를 위한 담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조명하며 다문화 사회의 가능성을 탐색

문화 다양성 연구 프로젝트의 주제 분석



□ ‘문화다양성 교육’이 통일·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 분단의 역사적 영향과 문화적 화해

- 한반도와 인도-파키스탄 분단 연구에서 역사적 갈등이 문화적 트라우마로 이어졌음을 분석
- 세대 간 전승되는 분단의 기억이 문화적 장벽을 형성하지만, 공유된 문화 요소(음식, 음악, 문학 등)를 통해 평화와 공감대를 형성 가능
- 문화적 공감이 역사적 갈등을 완화하고 화해로 이어질 수 있음

○ 다문화적 접근을 통한 통일 준비

- 한-인도 대학생들이 개발한 웹 게임 프로젝트에서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적 도구 개발
-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체험하는 게임을 통해 남북한 통일을 위한 사회적 포용력 강화 가능
- 남북한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갈등을 완화하는 전략으로 활용 가능

○ 문화적 교류를 통한 평화 구축

- 음악과 춤을 통한 문화 소비 연구에서 음악과 춤이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는 소통 도구로 작용

-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 교류가 남북한 및 인도-파키스탄 간 화해를 촉진할 가능성
 -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음식과 생활문화의 융합을 통한 공존 가능성
- 한-인도 요리의 퓨전이 새로운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창출하며, 음식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 가능
 - 북한과 남한의 음식 문화를 융합하는 방식이 남북 통일 후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가능성 제시
 - 음식은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최종 결론
- 문화 다양성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과 평화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다문화적 이해를 통해 남북한 및 인도-파키스탄 간의 갈등을 줄이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 문화적 공감대 형성과 융합(음식, 음악, 미디어, 문학, 패션 등)이 통일과 평화 구축에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문화 다양성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끄는 방법



6. 대학 주도 평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안

□ 교육 개요

- 본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핵심임을 확인하여, 대학이 주도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문화다양성 확산 및 통일·평화기반 구축’ 교육을 실행하는 커리큘럼을 개발하였음
- 목적
 - 학생들이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함양
 - 남북한 및 국제적 통일·평화의 중요성을 인식
 - 문화적 차이를 넘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 배양
 - 음식, 음악, 문학, 게임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향상
-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기초 문화 다양성 이해
 - 중학교 (1~3학년): 문화 다양성 사례 학습 및 토론
 - 고등학교 (1~3학년): 글로벌 문화 및 평화 구축 심화 학습
- 운영 주체:
 - 대학 내 교육학과, 사회과학대학, 국제학부, 문화콘텐츠학과, 동아시아학과 등 관련 학과 주도
 - 대학생 멘토링 팀 운영 (대학생이 직접 교육 진행)
- 교육 기간 및 방식:
 - 단기 과정: 8주 (주 1회, 총 8회 수업)
 - 연중 과정: 학기별 진행 (총 16회 수업)
 - 학교 및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워크숍 및 체험학습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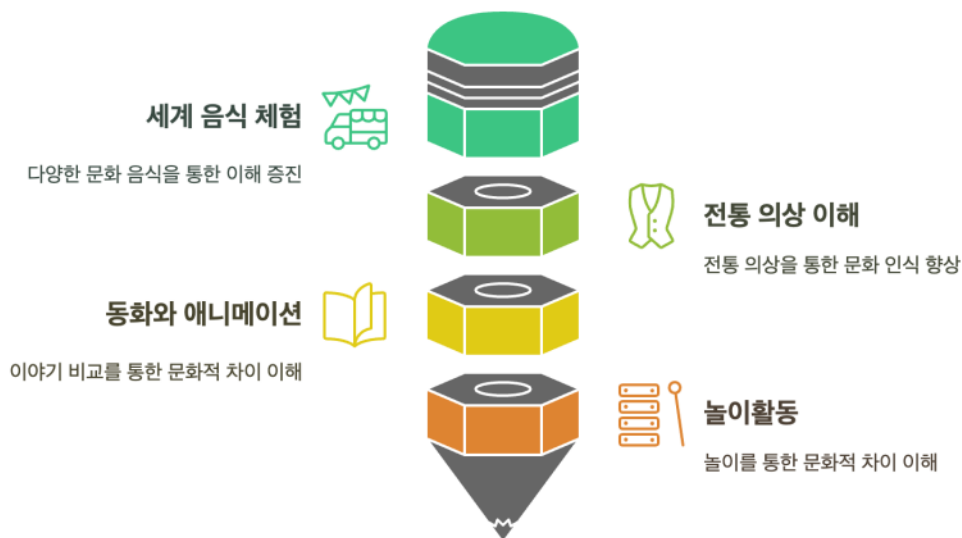
□ 교육 커리큘럼 개요 (초·중·고 맞춤형 프로그램)

1) 초등학교 과정 (문화 다양성 감수성 기르기)

- 목표
 -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 함양
- 주요 활동
 - ① 세계의 음식과 문화 체험

- 한·인도·북한의 대표 음식 소개 (김밥, 난, 평양냉면)
- ‘우리 반 다문화 푸드 페스티벌’ 개최 (학생들이 다양한 음식 시식)
- ② 전통 의상과 패션 이해
 - 한복, 사리, 북한 전통 의상 등 체험
 - 종이 인형 꾸미기 활동을 통해 다문화 감각 증진
- ③ 동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한 문화 이해
 - 한국, 인도, 북한의 전래 동화를 비교하며 이야기 속 문화적 차이 이해
 - 인형극(극놀이)으로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직접 연기
- ④ 평화와 공존을 위한 놀이활동
 - 남북한 어린이의 생활 비교 (일상생활, 놀이문화, 학교생활 차이 이해)
 - ‘세계 친구들에게 편지쓰기’ 활동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기르기)

초등학교 대상 - 문화다양성 감수성 기르기



□ 중학교 과정 (문화 교류 및 평화 기반 형성하기)

○ 목표

- 다문화 사회의 필요성과 통일·평화의 의미를 이해
- 한국과 세계 속 다양한 문화 융합 사례 학습

○ 주요 활동

① 문화 소비와 글로벌 트렌드 분석

- K-POP, 볼리우드 영화, 북한 가요 비교 분석
- 음악과 춤을 활용한 ‘다문화 댄스 교류회’ 개최

② 음식과 경제: 다문화적 소비 문화 이해

- 한국과 인도의 음식 문화 비교 (한식 vs 인도식, 북한 음식 포함)
- 퓨전 음식 만들기 (김치 난, 비빔밥 커리 등)

③ 다문화 공동체와 평화 구축

- 한반도 및 세계 난민 문제 탐색 (무슬림 이주민 사례 포함)
- ‘평화 인터뷰’: 난민, 다문화 가정 학생과 대화 나누기

④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 공감 프로젝트

- 웹툰/비주얼 노벨 만들기 프로젝트 (남북한, 한-인도 문화 융합 이야기 창작)
-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연극 만들기 (예: 남북 이산가족 이야기)

중학교 대상 - 문화 교류 및 평화 기반 형성하기



□ 고등학교 과정 (세계 속 문화다양성과 평화 구축 탐구)

○ 목표

- 통일 및 글로벌 평화 문제를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해결 방안 모색
- 문화 다양성과 경제, 정치, 사회 구조의 연관성 이해

○ 주요 활동

① 국제 갈등과 다문화 사회 사례 연구

- 남북한 통일 및 인도-파키스탄 분단 사례 비교
- ‘세계의 국경 문제 토론’ (예: 한반도, 유럽 난민 문제)

② 문화 외교와 소프트 파워

- K-POP, 볼리우드, 웹툰, 드라마 등 미디어 콘텐츠의 국제적 영향 분석
- 다문화 마케팅 실습 (한류와 인도 문화 홍보 전략 기획)

③ 정책 제안 및 문제 해결 프로젝트

- ‘내가 대통령이라면?’ 가상 정책 제안 (이주민·난민 정책, 남북 통일 정책 제안)

- 미래 통일 한국의 다문화 정책 수립 모의 UN 회의 진행

④ 한반도 평화 모델 연구 및 토론

- 북한 경제 개방 사례 연구, 독일 통일 과정 분석
- ‘통일 후 한반도 사회 시뮬레이션’ (경제, 정치, 교육 등 고려한 종합 계획 발표)

고등학교 대상 - 세계 속 문화다양성과 평화구축 탐구



□ 프로그램 기대 효과 및 평가 방법

○ 기대 효과

-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양하여 다문화 감수성 증진
- 통일과 평화의 가치를 체험적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
- 대학생들이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교육 기여 및 봉사 경험 축적

○ 성과 평가 방식

① 학생 변화 평가

- 사전·사후 설문조사로 다문화 이해도 변화 측정
- 프로젝트 후 발표 및 피드백 평가

②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성과

- 대학생 강사 피드백 및 학부모·교사 평가
- 지속 가능성 평가: 학교 정규과정 연계 가능 여부 검토

□ 프로그램의 의의

- 이 교육 커리큘럼은 체험형 활동(음악, 음식, 게임, 미디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문화 다양성을 경험하고, 통일과 평화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도움
-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직접 기여하며 평화·통일 교육을 실천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남북한 통일 및 글로벌 평화 구축을 위한 미래 세대의 역할 강화